

회계학 7급 A책형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1. (주)서울은 토지를 취득한 후 재평가모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토지의 취득원가와 각 회기 말 토지의 공정 가치는 <보기>와 같다. 토지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주)서울이 20X3년에 인식할 당기손실과 총포괄손실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구분	취득원가	각 회계기간 말 공정가치		
	20X1년 초	20X1년 말	20X2년 말	20X3년 말
토지	₩2,500	₩3,000	₩2,700	₩2,300

- ① 당기손실 ₩400 총포괄손실 ₩0
 ② 당기손실 ₩300 총포괄손실 ₩100
 ③ 당기손실 ₩300 총포괄손실 ₩400
 ④ 당기손실 ₩200 총포괄손실 ₩400

정답 ④

당기손실 ₩200 = ₩2,500 - ₩2,300

총포괄손실 ₩400 = ₩2,700 - ₩2,300

2. <보기>는 (주)서울의 연구, 개발과 관련된 자료이다. <보기>와 관련하여 (주)서울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연구비는? (단, 개발비로 분류되는 지출의 경우 개발비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보기>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의 지출	₩10,000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의 지출	₩10,000
·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의 지출	₩10,000
·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의 지출	₩10,000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	₩10,000

- ① ₩20,000 ② ₩30,000
 ③ ₩40,000 ④ ₩50,000

정답 ②

〈연구비〉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의 지출	₩10,000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의 지출	₩10,000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	₩10,000
합계	₩30,000

3. (주)서울은 20X1년과 20X2년에 당기순이익으로 각각 ₩1,000,000과 ₩2,000,000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20X1년과 20X2년의 당기순이익에는 <보기>와 같은 중요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오류가 20X1년과 20X2년의 당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20X1년	20X2년
감가상각비	₩100,000 과대계상	₩200,000 과대계상
기말선급보험료	₩30,000 과소계상	₩20,000 과소계상
기말미지급임차료	₩10,000 과대계상	₩40,000 과대계상
기말채고자산	₩70,000 과소계상	₩50,000 과소계상

- | | <u>20X1년</u> | <u>20X2년</u> |
|---|---------------|---------------|
| ① | ₩210,000 과대계상 | ₩200,000 과대계상 |
| ② | ₩210,000 과대계상 | ₩200,000 과소계상 |
| ③ | ₩210,000 과소계상 | ₩200,000 과대계상 |
| ④ | ₩210,000 과소계상 | ₩200,000 과소계상 |

정답 ④

〈오류수정 정산표〉

구 분	20×1	20×2
보고된 당기순이익	1,000,000	2,000,000
1. 감가상각비		
20×1년	100,000	
20×2년		200,000
2. 선급보험료		
20×1년	30,000	(30,000)
20×2년		20,000
3. 미지급임차료		
20×1년	10,000	(10,000)
20×2년		40,000
4. 기말재고		
20×1년	70,000	(70,000)
20×2년		50,000
수정된 당기순이익	1,210,000	1,200,000

4. (주)서울의 현재 당좌비율은 100%이고 매출채권회전율은 10회이다. <보기>의 거래를 모두 반영할 경우 당좌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의 변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000,000을 현금으로 지급 하였다.	
· 재고자산 ₩2,000,000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 매출채권 ₩4,000,000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좌비율	매출채권회전율
①	증가	증가
②	증가	감소
③	감소	증가
④	감소	감소

정답 ③

수정분개를 해보면

(차) 이자비용 1,000,000	(대) 현금 1,000,000
(차) 상품 2,000,000	(대) 현금 2,000,000
(차) 현금 4,000,000	(대) 매출채권 4,000,000

유동부채 변화없이 당좌자산이 1,000,000 감소했으므로 당좌비율 감소
 매출변화없이 매출채권이 4,000,000 감소했으므로 매출채권회전율감소

5. ㈜서울은 액면금액이 ₩100,000, 표시이자율이 연 10%(1년에 1회 이자지급)인 사채를 이자지급일에 현금 ₩113,000을 지급하고 조기상환하였다. 이때 사채상환손실이 ₩8,000이었다면, 상환시점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 ① ₩8,000 ② ₩5,000
③ ₩3,000 ④ ₩2,000

정답 ②

이자계상분개

(차) 미지급이자	1,159	(대) 현	금	10,000
-----------	-------	-------	---	--------

상환분개

(차) 사 채	100,000	(대) 현 금	103,000
사채상환손실	8,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

6. ㈜서울은 <보기>의 3가지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20X2년 ㈜서울의 포괄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손익은?

＜보기＞			
구분	취득원가	20X1년 말 공정가치	20X2년 말 공정가치
자산1	₩300	₩390	₩370
자산2	₩350	₩290	₩275
자산3	₩310	₩385	₩390

- ① ₩105 이익 ② ₩80 이익
③ ₩35 손실 ④ ₩30 손실

정답 ④

$$W_{30} \text{ 손실} = W_{20} \text{ 손실} + W_{15} \text{ 손실} + W_5 \text{ 이익}$$

7.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 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장시키는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③ 중립적 서술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정답 ③

③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서울은 20X1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120,000에 취득(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 연수합계법 상각)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산관련보조금 ₩40,000을 수령하였다. ㈜서울이 수령한 보조금을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 장치의 장부금액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은 없으며,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 | | |
|-----------|------------|
| ① ₩68,000 | ② ₩88,000 |
| ③ ₩92,000 | ④ ₩100,000 |

정답 ①

수령한 보조금을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므로 최초 취득시 장부가액은 80,000 이 되므로 답은 1번으로 바로 선택이 가능하다.

원칙상풀이는 다음과 같다.

$$68,000 = 80,000 - (80,000 - 20,000) \times 4/10 \times 6/12$$

9. 수익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상품을 도착지 인도기준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운송선박에 선적하였다.
- ② 상품을 거래처에 위탁하여 판매하였다.
- ③ 이자부 채권을 매입하고 3개월이 지났으나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였다.
- ④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으로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계하였다.

정답 ①

도착지인도기준이므로 운송중인 상품은 매출로 기록되지 않는다.

10.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10,000,000에 취득(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10년, 잔존 가치 없음)하여 사용하고 있다. 20X4년 12월 31일 동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건물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3,000,000과 ₩3,600,000이었다. 반면 20X5년 12월 31일에는 동 건물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각각 ₩4,800,000과 ₩5,500,000으로 회복 되어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 (주)서울이 20X5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 ① ₩1,800,000 ② ₩2,000,000
- ③ ₩2,300,000 ④ ₩2,500,000

정답 ②

20X4년 12월 31일 손상전 장부가액 6,000,000
20X4년 12월 31일 손상차손 2,400,000
20X4년 12월 31일 손상후 장부가액 3,600,000
20X5년 12월 31일 환입전 장부가액 3,000,000
20X5년 12월 31일 환입액 2,000,000

11. 「지방회계법 시행령」상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은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이다.
- ②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은 그 납입고지서의 납부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이다.
- ③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출이다.
- ④ 사용료·보관료·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출이다.

정답 ②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입(歲入)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부기한(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

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2.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3.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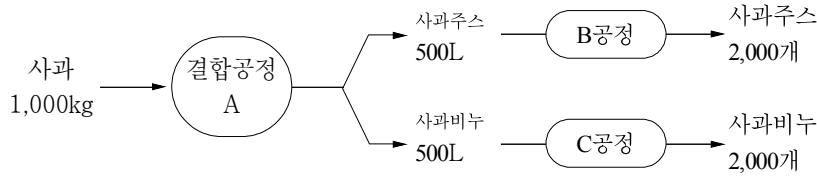
1.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보관료·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6. 공사비·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7. 그 밖의 경비: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12. (주)서울은 사과를 가공해서 사과주스원액과 사과비누원액을 생산한 후, 추가가공을 거쳐 사과주스와 사과비누를 생산 하고 있다. 20X1년 1월 사과 1,000kg을 투입(분리점까지 발생원가: ₩3,000,000)하여 사과주스원액 500L와 사과 비누원액 500L가 생산되었다. 사과주스원액 500L는 추가 원가 ₩500,000으로 사과주스 2,000개가 생산되었으며, 사과비누원액 500L는 추가원가 ₩700,000으로 사과비누 2,000개가 생산되었다. 제품별 판매가격은 <보기>와 같다.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은 없으며 생산된 제품은 모두 판매 되었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sales value at split-off method)을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사과주스의 매출총이익은?

<div> <보기> - 제품별 판매가격 - </div>	
사과주스원액: L당 ₩1,000	비누원액: L당 ₩2,000
사과주스: 개당 ₩2,000	비누: 개당 ₩3,000

- | | |
|--------------|--------------|
| ① ₩1,200,000 | ② ₩1,500,000 |
| ③ ₩2,000,000 | ④ ₩2,500,000 |

정답 ④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sales value at split-off method)을 구해보면

사과주스원액 : 500,000

사과비누원액 : 1,000,000

따라서 결합원가 배부액은 사과주스원액에 1,000,000 이 된다.

사과주스의 매출총이익 = $4,000,000 - 1,000,000 - 500,000 = 2,500,000$

13. 종업원급여에 대한 내용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투자한 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 ②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 한다.
- ③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채무가 생기며, 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즉 급여가 가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생긴다.
- ④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기타포괄 손익에 인식된 금액은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없다.

정답 ③

- ①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투자한 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 ②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 하지 않는다.
- ④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복수사용자제도: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확정급여제도(공공제도 제외)나 확정기여제도(공공제도 제외)

- (1) 동일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여러 기업이 출연한 자산을 공동 관리한다.

- (2) 둘 이상의 기업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그 자산을 사용하며, 기여금과 급여 수준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별 기업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복수사용자제도

- 32 복수사용자제도는 제도규약(공식적 규약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 33 기업이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문단 34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복수사용자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과 원가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비례적 지분을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 (2) 문단 135~148(문단 148(4) 제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34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지만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문단 51과 5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2) 문단 148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35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현금수지균형방식에 따라 제도의 기금이 조달되고 있다. 즉, 일정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준으로 그 기간의 기여금이 산정되고, 당기에 생긴 미래 급여는 미래의 기여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 (2) 그리고 종업원급여액은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참여기업이 복수사용자제도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탈퇴일까지 생긴 종업원급여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생긴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가 예상보다 많다면 기업은 기여금을 늘리거나 종업원에게 감액된 급여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다.

36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는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하여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경우 그 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퇴직급여원가에 대한 기업의 비례적 지분은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제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의 비례적 지분을 신뢰성 있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1) 복수사용자제도에서 참여기업이 다른 참여기업의 전직·현직 종업원과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하고, 그 결과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각 개별 기업별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원가를 배분할 수 있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없다.
- (2)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복수사용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문단 148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37 복수사용자제도와 그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합의에서 복수사용자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방법이나 과소적립액을 참여자에게서 보전 받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이 있는 복수사용자제도의 참여자가 복수사용자제도를 문단 34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 합의로 생기는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수익이나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37에 대한 사례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복수사용자제도에서는 이 기준서에서 규정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해당 복수사용자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평가방법과는 무관한 기금평가 방식에 따르면 복수사용자제도에 1억원의 과소적립액이 생겼다. 복수사용자제도와 참여하는 사용자는 앞으로 5년간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의 납부 일정에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될 총 기여금은 8백만원이다.

기업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조정한 기여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을 당기손익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38 복수사용자제도는 집단관리제도와 구별된다. 집단관리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사용자제도를 결합한 것으로서, 참여하는 사용자들은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공동 관리하여 투자관리 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각 사용자의 청구액은 각자의 종업원급여별로 구분된다. 집단관리제도에서는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단일사용자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고, 참여기업이 다른 참여기업의 전직·현직 종업원에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에서 특별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집단관리제도는 이 기준서의 용어 정의에 따라 제도규약(공식

적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도 포함)을 고려하여 확정기여 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39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의 청산이나 그 제도에서의 탈퇴와 관련된 채무의 인식 시기와 측정방법을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한다.

14. <보기>는 ㈜서울의 기초 및 기말의 자산, 부채 현황이다. ㈜서울은 당기 중에 ₩1,000,000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500,000의 현금배당과 10%의 주식배당을 완료하였다. ㈜서울의 당기순이익은? (단, 당기 중 해당 내용 외의 자본거래는 없었으며, 기타포괄손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div> <div><보기></div> </div>		
	기초	기말
자산	₩35,000,000	₩39,000,000
부채	₩20,000,000	₩22,000,000

- ① ₩1,500,000

② ₩3,000,000

③ ₩4,000,000

④ ₩5,000,000

정답 ①

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유상증자-현금배당

₩17,000,000=₩15,000,000+ 당기순이익+ ₩1,000,000-₩500,000

당기순이익= ₩1,500,000

15. <보기 1>과 <보기 2>는 ㈜서울의 해외 종속회사인 S사의 20X1년 수정후시산표 및 20X1년 \$1당 원화자료이다. 기능통화인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는 수정후시산표를 표시 통화인 원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S사의 포괄손익계산서상 총포괄이익은? (단, S사는 20X1년 초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자본거래는 없었다.)

<div> <div><보기 1></div> <div><20X1년 S사 수정후시산표></div> </div>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 400	부채	\$ 170
비용	\$ 70	자본금	\$ 200
		수익	\$ 100
합계	\$ 470	합계	\$ 470

<보기 2> <20X1년 \$1당 원화자료>	
구분	환율
20X1년 초 환율	₩800
20X1년 평균환율	₩900
20X1년 말 마감환율	₩1,000
(단, 환산 시 수익·비용항목은 평균환율을, 자본항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 ① ₩27,000 ② ₩30,000
 ③ ₩50,000 ④ ₩70,000

정답 ④

재무상태표			
20×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자 산		부 채	
	$\$ 400 \times \text{₩}1,000$		$\$ 170 \times \text{₩}1,000$
		자 본	
		자 본 금	$\$ 200 \times \text{₩}800$
		이익잉여금+기타	X
		포괄손익누계액*	
자산총계	<u>400,000</u>	부채 및 자본총계	<u>400,000</u>

X=70,000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현행환율법)

재무제표는 어떠한 통화로도 보고할 수 있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

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2)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3) 위 (1)과 (2)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16. 리스에 관한 내용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초로 인식될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전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 연수로 본다.
- ②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소리스료(선지급액 포함)는 리스약정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각각에 배분한다.
- ③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④ 리스이용자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임차권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토지와 건물 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리스이용자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임차권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토지와 건물 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소리스료(선지급액 포함)는 리스약정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각각에 배분한다. 만약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하나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문단 20에 따라 최초로 인식될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문단 7~13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경제적내용연수를 전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로 본다.

리스이용자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임차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토지와 건물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평가를 위한 상세한 계산이 필요하다.

17. <보기>는 (주)서울의 20X1년 법인세와 관련된 거래내용이다. (주)서울의 20X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 이며, 당기 과세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10%이다.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단, 향후 세율은 일정하며, 과세소득은 20X1년과 동일하고 전기 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

<보기>	
• 20X1년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100,000이다.	
• 20X1년 7월 1일 ₩50,000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20X1년 8월 31일 ₩100,000에 처분하였다.	
• 20X1년 ₩100,000에 취득한 토지의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150,000이며 (주)서울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① ₩105,000 ② ₩110,000
 ③ ₩115,000 ④ ₩120,000

정답 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1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
재평가잉여금	₩50,000
토지익금불산입액(일시적차이)	(₩50,000)
과세표준	₩1,150,000

<분개>

(차) 법인세비용	110,000	(대) 미지급법인세	115,000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	이연법인세부채	5,000
재평가잉여금	5,000		

18. ㈜서울의 2018년 매출이 ₩18,000,000이고, 총비용은 ₩15,000,000이다. 총비용 중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은 2:3이다. ㈜서울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은?

- ① ₩6,000,000 ② ₩9,000,000
- ③ ₩12,000,000 ④ ₩15,000,000

정답 ③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이익

₩18,000,000 = ₩9,000,000 + ₩6,000,000 + ₩3,000,000

변동비율 = 50% 이므로 공헌이익률도 50%

고정비 ₩6,000,000을 공헌이익률로 나누면 손익분기점은 ₩12,000,000이 된다.

19.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 ②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여 순증감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적을 수 있다.
- ③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④ 순자산변동표에서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 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등을 말하며,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을 말한다.

정답 ②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20. ㈜서울은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저가기준 선입선출 소매 재고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

기>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보기>		
항목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자산	₩800	₩1,000
당기매입	₩4,200	₩6,400
매입운임	₩900	
매출액		₩4,000
인상액		₩500
인상취소액		₩100
인하액		₩400
인하취소액		₩200

- ① ₩2,223 ② ₩2,290
 ③ ₩2,700 ④ ₩2,781

정답 ③

- (1) 기말재고(매가) : $1,000 + 6,400 + 400(\text{순인상}) - 200(\text{순인하}) - 4,000 = 3,600$
 (2) 원가율 : $5,100 / (6,400 + 400) = 75\%$
 (3) 기말재고(원가) : $3,600 \times 75\% = 2,700$